

흑자전환 비결은... 국내·외 내실강화로 '턴어라운드'



정성필 대표 나선 이후 실적 개선
외식사업 적자매장 과감하게 정리
투썸 매각, 부채비율 300%대로 ↓

CJ푸드빌이 지난해 적자 폭을 대폭 줄이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5년 4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이후 2016년 23억 원, 2017년 38억 원, 2018년 434억 원으로 적자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서는 6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3분기 누적 순이익 181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905억 원)과 대비 2배 이상 신장한 규모다.

CJ푸드빌은 2018년 7월 정성필 대표가 구원투수로 나선 이후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정 대표는 CJ헬로비전과 CJ CGV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재무통'으로 잔뼈가 굵다. 정 대



뚜레쥬르 베이징 오도구점 전경

/CJ푸드빌

표는 CJ푸드빌 대표에 오른 뒤 외식사업에서 적자매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남은 매장은 특화 매장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CJ푸드빌 브랜드 국내 점포는 2018년 4분기 기준 2566개에서 2019년 3분기 1628개까지 절반이 줄었다. 특히 계절밥상 점포 수는 2017년 54개에 달했으나 현재 15개로 대폭 줄었다. 빙스 또한 2014년 이후 매장 80여 개를 유지하다 현재 41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자회사 투썸플레이스 지분 45%를 2025억 원에 앵커에쿠

티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투썸플레이스 매각으로 6000%가 넘었던 부채비율은 300%대로 내려갔다.

해외 사업 역시 내실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 오픈했던 '빙스' 매장은 지난해 1호점 폐점으로 완전히 철수했다. 앞서 2017년 싱가포르의 비비고 매장을 철수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일본 진출 9년 만에 CJ푸드빌재팬을 완전 정리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중국에서는 현지 사모펀

드인 호센캐피탈로부터 약 87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자금 수혈을 받으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CJ푸드빌은 중국 뚜레쥬르 5개 법인 중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법인을 합쳐 호센캐피탈과 합작법인인 비앤씨 크래프트(B&C Craft)를 설립했다.

CJ푸드빌은 최근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서비스를 강화하며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계절밥상은 가정간편식(HMR) 메뉴를 확대하며 온라인 식품 배송 업체 마켓컬리에 입점시켰다.

뚜레쥬르는 지난해 9월 배달 앱 요기요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배달 서비스 매출은 출시 초기보다 60% 이상 늘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특히 수요가 많아 평일 대비 약 20% 이상 매출이 높다.

이에 CJ푸드빌은 서비스 채널 및 매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빙스는 HMR '다잉인더박스'(Dining in the Box)를 출시하고 배달 앱과 제휴해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

자와 폭립, 치킨과 웨지 감자를 한데 구성한 빙스 '파티박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위생 관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1월~2월 14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빙스, 계절밥상 등은 특화 매장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에서도 투자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적자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냈다"라며 "앞으로는 외식 브랜드 사업이라는 본업을 강화하고 트렌드인 O2O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빙스 '파티박스' 제품

최종결과만 남은 진에어, 연내 제재해제 기대

진에어, 국토부에 '추가 계획' 제출
제재 해제 위한 경영문화 개선 박차
내달 추중... '사외이사 선임' 주요안건

국토부의 장기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제재 해제를 위한 최종 결과만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장기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의 제재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보이콧 재팬'과 더불어 제재까지 겹치며 적자전환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추가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나서며 연내 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로부터 추가 개선 사안을 요구받은 직후 다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최종 제출했던 보고서를 검토해 추가 개선 사안을 요청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경영 간섭 배제·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이에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또 다른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17개 항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여러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종 결과로써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진에어가 12월 말 이후 이사회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계획을 제출해 그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진에어 제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어떻게 낼 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에어도 제재 해제를 위한 경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오는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국토부가 요구했던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 다뤄지게 됐다. 진에어는 남택호·박은재·이우일·정중원 등 4명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주요 내용으로 올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지난 21일 포스코케미칼과 OCI가 서울 중구 OCI본사에서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왼쪽)과 김택중 OCI 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OCI

포스코케미칼, OCI와 합작법인 설립 종합화학분야 사업확장 본격화

2022년 상업 생산 목표
광양제철소서 COG 공급

포스코케미칼과 OCI가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포스코케미칼과 OCI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화학사업 분야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으로 손을 잡은 양사는 지난 21일 과산화수소 제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 지분은 포스코케미칼 51%, OCI 49%로, 오는 2022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고순도 과산화수소는 철강공정 부산물인 코크스로 가스(COG)로부터 얻은 수소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식각과 세척에 사용된다.

필수 멸균제로도 쓰이는 과산화수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도 쓰이는 물질이다. 과산화수소의 핵심원료인 COG는 광양제철소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번 합작사업을 통해 OCI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경제적으로 확보하고 현재 운영하는 과산화수소 사업의 경쟁력과 지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스코케미칼은 철강공정 부산물을 원료로 화학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종합화학분야로의 사업확장을 본격화한다.

김택중 OCI 사장은 "과산화수소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함께 모색할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포스코케미칼과 다양한 합작사업들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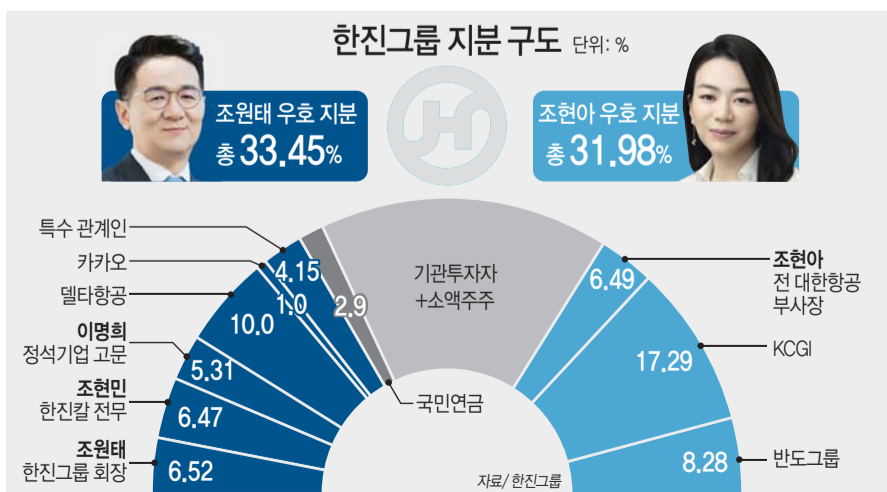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고부가가치 화학과 소재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포스코케미칼이 가진 화학 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OCI의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로 새로운 사업 기회와 수익창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추가매입... 조원태 회장에 힘신나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그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타항공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1% 추가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10%였던 지분은 11%로 확대됐다. 약 5개월만에 첫 추가 매입한 것이다. 오는 3월 앞두고 있는 한진칼 주주총회 이후에도 지속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한진 총수일가(18.3%)와 재단 등 특수 관계인(4.15%)에 더불어, 백기사



델타항공(11%)과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카카오(1%),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자가보합·사우회(3.81%)까지 합해 38.26%다. /김수지 기자